

여야, '이종섭 호주 출국' 놓고 공방

야권 일제히 비난... '개구멍으로 도망'

국힘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 위한 것'

여야 정치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할 것을 놓고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하며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한 것은 관계 부처의 조직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설 때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법적 검토 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했으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면서 "핵심 피의자 빼돌리기 작전이 법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전 장관을 '린종섭'이라고 칭하며 "범죄 수사가 좁혀질 때 외국으로 파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들들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공수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것"이라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왜방하는데 협조한 국방부 관계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알았겠느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로 방어벽을 같이 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박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이날 오후 범인도피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돼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도운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식으로 돌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의 우방국인 호주는 최근 우리나라와 막대한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에 더욱 강화해 갈 적기"라며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은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로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 내정자가 출국할 것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이해찬·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선임

김부겸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인을 선임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다.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無)'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선대위 합류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평가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눈앞에 왔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상처를 보듬고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국민만 바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한동훈 "도태우, 국민 눈높이서 재검토"

과거 5·18 관련 발언 논란되자 공관위에 재검토 요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구 중·남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관위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복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도 변호사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선 광주 동남·을에 공천된 박은식 비대위원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이 도 변호사 발언을 공관위가 걸러내지 못한 점, 도 변호사 사과문의 진정성 등을 놓고 우려를 제기하며 지도부 간 격론이 벌어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비례 3번' 받아

더불어민주연합, 호남권 여성 3명 포진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의 공개 오디션에서 정영이(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비례 3번'을 받았다.

비례 1번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2번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4번은 입대해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받았다. 국민후보는 야권 비례 연합에 참여

한 각 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외에 시민사회가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비례 대표 후보를 뜻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순번은 국민후보를 첫 순서에 넣고 여성을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 운영위원이 '비례 1번', 정 농민회장은 '비례 3번'을 받았다.

이날 오디션에서 전 운영위원은 73점,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72점으로 각

각 여성 1·2등을 차지했다. 김 교수는 100점을 받아 남성 1위에, 임 전 소장은 72점으로 남성 2위에 올랐다.

정 구례군농민회장은 전국에선 처음으로 유일하게 전농의 군 농민회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자주통일위원장,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지낸 전여농 핵심 인



사 출신이다. 이날 시민사회 및 비례대표 후보 4명이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권 비례연합 참여 단위들의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

진보당에선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영광), 전종덕 전 민주노동당 총장(함평) 등 3명이, 새진보연합에선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3명이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연합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는 호남권 여성 후보가 3명 이상 포진하게 됐다. /김진수기자

신정훈,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공약이행 우수 의원 선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의원 공약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상근 모니터위원,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 국내외 85개 대학교의 대학생들(2천349명)과 함께 제2대 국회 선거공보에 게재된 선거공약을 평가점수별로 분석, 평가해 상위 25%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신 의원은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대표발의해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이끌었다"며 "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 통과로 2025년까지였던 법 시행을 연장하고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화순군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